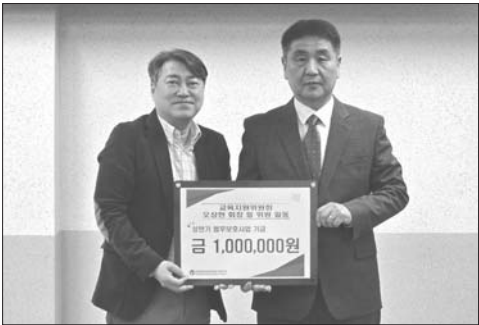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지난 20일 전북지부 대회의실에서 교육지원위원회(회장 오상현)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상현 회장과 위원 8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월례회의와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원 전달식이 진행됐다. 오상현 회장은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에 기여를 느낀다”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자에게 시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순세 지부장은 “항상 물심양면 지원해주시는 교육지원위원회 회장님과 위원님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조성된 기금을 법무보호 대상자들에게 안정된 사회복귀를 위해 사용하겠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기전대, 다같이 the 원주협동조합과 협약

전주기전대학교 RISE사업단(단장 조덕현)은 지난 20일 다같이 the 원주 협동조합(회장 김연순)과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정주형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전주기전대학교 성인학습지원센터 온은아 교수와 다같이 the 원주 협동조합 김연순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취업 연계 강화 △RISE 사업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이다. /정은성 기자

김제 황산면,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김제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깨끗하고 쾌적한 황산면을 만들기 위해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황산면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등 2개 사회단체 회원과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황산면 축협경매장에서 연리마을 입구까지 각종 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금지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백구면, 경로당 방문해 소통하는 현장행정 추진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봄을 맞아 경로당을 방문해 시정 홍보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선규 백구면장은 지난 17일부터 관내 30개소 경로당을 방문해, 새만금 동서 도로 김제시 관할 결정 및 2036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전북특별자치도 선정 홍보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시정에 대해 휴대폰 보이스아이옴을 통해 새만금 지평선 소식지를 어르신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직접 시연, 살아있는 현장 행정을 펼쳤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산면 어부바 주민자치봉사단, 마을공동밥상 진행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어부바 주민자치봉사단(단장 신은화)과 함께 '마을공동밥상' 텃밭수확 도시기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을공동밥상' 사업은 시기에 맞는 특색있고 영양가 높은 도시락을 만들어 홀로 어르신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어부바 봉사단은 홀로 어르신과 거동불편 어르신 400세대에게 텃밭수확을 전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인사

새만금개발청

◇국장급 승진 ▲김성호 개발전
략국장

녹색 친환경 도시 군산 미래 숲 조성 동참

군산산림조합, 6200만원 상당 현수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 유도를 위한 미래의 푸른 숲 조성 사업에 힘쓰고 있는 군산시를 향한 지역사회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군산산림조합은 지난해 12월에 준공한 철길 숲 1·2구간 유희부지에 6,200만원 상당의 도시숲 조성(현수)을 기탁했다. 이전에도 군산산림조합은 △월명동 도시숲 △신풍동 작은숲 △생말공원 그늘숲 조성 등에도 4억여 원을 현수 한 바 있다. 김성현 조합장은 “녹색 친환경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참여가 활발한 가운데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으로 같이 동참하는게 당연하여 기탁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기관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어 군산 시민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군산시는 미래의 숲 조성 사업의 하나로 범시민 참여 현수 사업을 본격 추진해왔으며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5만 8,500본(추정금액 11억 6천만 원)의 수목

을 현수받은 바 있다. 참고로, 도시바람길숲(철길숲) 전체 사업 구간은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사정삼거리에서 옛 군산 화물역까지 총 2.6km로 활력·여유·추억·어울림 등 4개 테마 숲으로 꾸며진다. 앞으로도 시는 철길숲 주변에 현수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친화 도시숲 조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대 동화팀,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 ‘3위’ 영예

실제 AI 활용한 딸기 재배 실증 프로젝트 성공적 수행 ‘호평’

전북대학교 생물산업기계공학과 농업 디지털 및 지능화 연구실(지도교수 양명균)이 ㈜씨더스와 협력해 구성한 동화팀(팀장 양명균)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2024년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에서 3위에 올랐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과 함께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지난 21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대회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된 본선 실증 단계에서 실제 딸기 작물을 대상으로 AI 기반 생육 및 환경 제어 기술을 선보였다. 이에 동화팀은 실제 재배 환경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딸기 재배 실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팀 구성원 대부분이 전북대 생물산업기계공학과와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 인공지능 분야에 막 입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한된 경험을 극복하고 혁신적인 기술력과 창의성을 발휘한 점이 돋보였다. 여기에 ㈜씨더스의 전문 디지털 솔루션과 기술 노하우가 더해져 AI 모델 개발 및 실증 과정에 두 기관 간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빛을 발했다.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양명균 교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젊은 인재들이 AI와 농업의 융합 기술을 실증하는 과정을 직



접 경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농업과 미래 농업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실용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동화팀은 전북대 생물산업기계공학과 농업 디지털 및 지능화 연구실 소속 5명(양명균, 최우주, 이성환, 김영진, 정도균)과 ㈜씨더스 표현체팀 소속 2명(이도신 팀장, 조광현 주임)으로 구성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 발전연합회, 전주천 환경정화 캠페인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회장 최한양)가 전주천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환경 정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21일 오전, 연합회 임원 50여명은 전주 다가공원에 모여 환경 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쓰레기 줍기 봉사에 나섰다. 이들은 4개 조로 나뉘어 전주 한옥마을 한벽루 천변에서 고수터미널 앞 천변까지 이동하며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연합회 측은 “비록 작은 실천이지만 지속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한 전주, 발전하는 전복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정기적인 환경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하림, ‘세계 물의 날’ 맞아 금마저수지 일대 환경정화

종합식품기업 ㈜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3월 22일 제33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천연기념물 서식지인 익산시 금마저수지와 육룡천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수자원 보전을 위한 ESG경영 실천에 나섰다. 하림 행복지음 봉사단 90여명과 환경운동연합, 해병전우회, 익산시 생태관광 협의회 등 총 15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 기업과 단체는 물 부족 현상과 수질오염의 심각성, 물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생태환경 지킴이 활동을 함께 했다. 하림은 지난 2016년 임직원들로 구성된 ‘하림 행복나눔 봉사단’을 창설하고 해마다 세계 물의 날에는 수자원 보전 활동을 펼치며 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매년 사업장 인근 하천 정화 활동, 사업장에서의 수자원 절감 노력 등 임직원과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도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익산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임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치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소방서 소속 오준옥 소방관, 아파트 화재 막아

남원소방서는 19일 19시경 여수시 화장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아파트에 거주 중인 남원소방서 소속 소방장 오준옥 소방관(사진)이 비번으로 자택에서 외출하던 중 해당 화재를 목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큰 피해를 예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 소방관은 상황을 파악 후 아파트 주민 대피를 유도하고,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세대 거실이 연기로 가득 찬 상황에서 안방에 있던 주민을 확인하고 소리쳐 밖으로 대피시켰으며, 아파트 복도의 국내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화재를 시도했다. 한편, 소방관 오준옥은 “평소에도 소방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력행위 자제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력행위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731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84%는 주취자가 가해자로 밝혀졌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소방대원 폭력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지난해부터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도 감형 없이 엄중히 처벌된다. 안동춘 대응예방과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범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덕과면 지사협, 올해 제1차 정기회의 개최

남원시 덕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9일,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현황 보고 및 신규 사업추진 안전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민·관협력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대 민간위원장은 “주위 복지사각지대의 이웃을 적극 발굴해 민간 자원과 연계해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어르신과 함께 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고창소방서는 지난 20일, 고창 아름다운쉼터 노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어르신들이 방문해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에 참여하며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차 동승체험을 실시했다. 또한 고창의용소방대연합회 대원들도 함께해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캠페인은 화재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름다운쉼터 노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어르신들이 직접 소방차에 탑승해 긴급 출동 시 운행 환경을 체험하고, 소방관들로부터 화재 예방 및 응급처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소방차 동승체험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소방차가 출동할 때 길을 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창 대응총괄팀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는 작은 실천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소방안전 캠페인을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